

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체험 활동지

아이와 함께 무거운 역사 장소를 볼 때는 많은 정보를 외우게 하기보다, 한 사람의 마음과 선택을 상상해 보는 시간이 더 오래 남습니다.

1. 들어가기 전 오늘의 약속

☐ 조용히 걷고, 설명을 들을 때는 잠시 멈춰요.	☐ 무서운 장면이 있으면 부모에게 바로 말해요.
☐ 독립운동가를 '옛날 사람'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해요.	☐ 기억하고 싶은 장면 하나를 골라 집에 와서 이야기해요.

2. 관찰 미션

☐ 가장 마음에 남은 건물 찾기	☐ 붉은 벽돌담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 쓰기
☐ 독립운동가 이름 하나 기억하기	☐ 감옥 안에서 가장 불편했을 것 같은 점 찾기
☐ '자유'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 찾기	☐ 집에 와서 더 찾아보고 싶은 질문 하나 만들기

3. 하브루타 질문

왜 이곳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역사관으로 남겨졌을까?	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왜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고 했을까?
네가 그 시대의 어린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?	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?
기억해야 하는 역사와 잊어도 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?	무서운 이야기를 배울 때 부모와 선생님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?

4. 집에 와서 한 줄 기록

오늘 가장 오래 생각난 장면	
그 장면을 보고 든 마음	
내가 앞으로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	

토이포포 활동지는 방문 전후 대화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. 역사 해석과 전시 운영 정보는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.